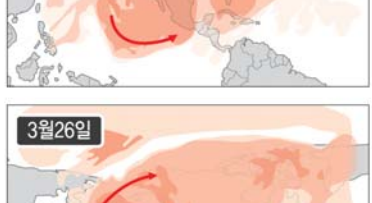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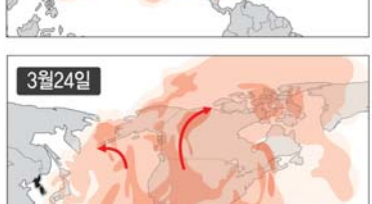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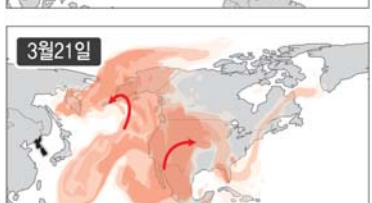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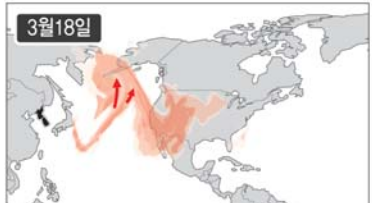


의원전 방사성 물질 확산 예측 경로

프랑스기상청 예측 시뮬레이션



‘방사능 공포’ 아시아 곳곳 확산

중국·태국·대만서도 방사성 물질 잇따라 검출

한국과 중국 지역에서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131이 검출되고 일본산 식품에서도 잇따라 방사성물질이 검출되면서 일본발 방사성 물질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중국은 동북부 하이룽강성에 이어 동남부 연안 지역 여러 곳에서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131이 검출돼 방사성 물질 확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29일 신경보(新京報)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국가핵안전국은 동부 연안인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 광둥성, 광시 좡족자치구 6개 성·시·자치구의 일부 지역 공기에서 28일 요오드-131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요오드-131이 검출됐지만 농도가 4~10베크렐(Bq)/m로 자연 방사선량의 십만분의 일 수준에 불과하므로 인체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방호 조치는 필요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출된 방사성 물질이 바람을 타고 중국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국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물질 확산이 계속되면서 중국에서도 검출 수위가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방사성

물질은 이미 대량으로 희석된 상태이므로 사람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중요하지 않아 달라고 당부했다.

방사성 물질 확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중국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은 물론 베이징 주요 도시의 식수와 식품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에서 태국과 대만 등으로 수출된 식품에서도 잇따라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태국 보건부는 29일 일본에서 수입된 고구마에서 방사성 물질이 첫 검출돼 추가 조사 후 폐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고구마는 일본 혼슈(本州) 지방의 이바라키(茨城)에서 수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에서는 일본 항구 도시 요코하마(横浜)에서 수입한 우동 종이 포장지에서 요오드-131, 세슘 134, 세슘-137이 각각 14.8, 16.7, 18.9Bq(베크렐)씩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만 당국에 따르면 일본 아이치(愛知)현에서 수입한 조개류에서 방사성 물질 요오드-131, 가고시마(鹿児島)현에서 수입한 잠두(누에콩)에서 요오드-131과 세슘이 이미

검출된 바 있다. 대만은 일본 후쿠시마(福島) 등 5개 현(縣)에서 생산된 모든 식품을 이달 25일부터 수입 금지했으며 일본 다른 지역에서 수입된 식품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록도 한센인들도 일본 돕기 모금활동

국립소록도병원에 입원 중인 한센인들이 대지진과 쓰나미로 고통받는 일본인들을 위해 성금을 모았다.

29일 소록도병원에 따르면 한센인들은 최근 모금활동을 통해 747만원을 모아 이를 한센인권변호단을 통해 일본 후생노동성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명호 소록도병원 원생대표는 “소록도는 일제 강점기에 한센인들이 강제노역과 가혹행위를 당한 아픈 역사의 현장”이라며 “그러나 지진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모금 활동을 전개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분청 및 자치구 공무원들도 일본 샌다이 지진피해 돕기 성금모금 캠페인에 참여해 모두 6600여만원의 성금을 모아 이날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29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열린 백두산 화산 협에서 유인창(오른쪽) 남측 수석대표와 윤영근 북측 단장이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南北,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 필요성 공감

29일 남북의 전문가들이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와 현지답사 등 협력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일각에서 백두산 화산 분화 조짐을 주장하는 가운데 평소 백두산을 ‘혁명성지’로 선전해온 북한이 화산 폭발 개연성을 시사하며 남북간 협의를 제안한 터라 이날 양측의 대화는 눈길을 끌었다.

◇공동 연구 필요성 공감=남북은 29일 전문가회의를 통해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차기 전문가 회의는 협의해서 정하기로 했다.

남북은 이날 경기도 문산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전문가 회의를 통해 백두산 화산과 관련한 남북 협력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남측 수석대표인 유인창 경북대 지질학과 교수는 전문가 회의가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북측은 백두산 화산활동에 대한 공동연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전문가 간 학술토론

회를 진행하고 현지에서 나가 공동으로 조사하는 방식의 공동연구 방안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백두산 정밀 분화할까=일본 국내 전문가들은 백두산이 이미 전조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윤성호 부산대 교수는 최근 “백두산에서 지난해 11월 이산화황 가스가 대량 방출된 것이 확인되는 등 화산 분화 전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예측불허 상태”라고 말했다.

중국 지진국 지구물리연구소도 2007년 “2002년 7월 이후 천지 화산지구의 지진 활동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규모도 커지는 추세”라고 경고한 바 있지만, 반관영 중국신문사는 작년 7월 지린(吉林)성 지진국 관계자를 인용해 “지금까지 관측한 데이터로는 백두산이 가까운 장래에 폭발할 것으로 볼만한 징후가 없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편 우리 기상청은 이달 초 ‘선제적 화산 대응 종합 대책’을 수립했다. /연합뉴스

원전 내부서 플루토늄 검출 日 정부 “매우 심각한 사태”

방사성 물질을 대량으로 방출한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부지 여러 곳에서 플루토늄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곳에서 40km 떨어진 후쿠시마현 이다테(飯館) 마을에서는 일본내 역대 최고치의 세슘이 검출됐다.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28일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 5곳에서 플루토늄을 검출했다며 이번 원전 사고로 핵연료에서 방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제1원전 3호기는 MOX라고 불리는 플루토늄 연료를 쓰고 있다.

도쿄전력 측은 검출된 플루토늄의 농도가 과거 (다른 국가의) 핵실험 시 일본에서 검출된 것과 같은 수준이라며 “극히 미량으로 일반적인 환경의 토양에서 검출되는 수준이고, 인체에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아니다”라

고 설명했다.

안자이 이쿠로 리쓰메이칸대학 명예교수(방사선방호학)는 “플루토늄은 지금까지 검출된 다른 방사성 물질과 달리 알파선을 방출하는 게 특징”이라며 “알파선은 감마선보다 세포 파괴력이 약 20배나 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제 대해 어디에 유키오(枝野幸男) 일본 관방장관은 29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연료봉이 일정 정도 녹았다는 걸 뒷받침하는 일로 매우 심각한 사태”라며 관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에다노 관방장관은 “핵연료에서 나왔다고 생각되는 종류가 검출되고 있다. 연료봉에서 나왔다는 점은 거의 틀림 없는 듯 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변의 물웅덩이에서 강한 방사선이 검출됐다는 점과 함께 연료봉이 어느 정도 녹았다는 점을 뒷받침하

는 것이다”며 “매우 심각한 사태이며, 주변의 영향을 저지하고 수습하기 위해 큰 힘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40km 떨어진 이다테 마을에서 26일 채취한 잡초를 분석한 결과 1kg당 최고 287만Bq(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 또 제1원전에서 북서쪽으로 45km 지점에서는 잡초 1kg당 57만1천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 이다테 마을의 토양오염은 이미 1986년 발생한 러시아 체르노빌 원전 사고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다.

상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추측되는 2호기 터널 지하와 바닷가를 잇는 터널에 물이 차 있고, 물 표면에서 시간당 1000mSv(밀리시버트) 이상의 방사선량이 측정됐다

도 도쿄전력이 밝혔다. NHK는 “원자로 건물이나 터널실은 방사선 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터널은 제외돼 있다”며 “평소에는 방사성 물질이 절대로 들어갈 리 없는 곳에도 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이 흘러넘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도쿄전력은 28일 새벽 기자회견에서 2호기의 경우 연료봉을 담은 탄소강 재질의 압력용기 바닥에 구멍이 뚫렸을 개연성이 있다고 처음으로 언급했다. /연합뉴스

비스킷 식사에 토막잠... 가혹한 원전 작업

위기 상황의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원자로 3호기에서 복구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의 가혹한 근무 환경이 공개됐다.

이들은 제한된 식사와 물, 농동도 방사선 물질에 노출될 위험성, 열악한 근무 조건에 있지만 ‘여기 말고는 일할 곳이 없다’며 원전에서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또 교체 인력 확보의 어려움에 ‘일당

40만원’의 제안도 나오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29일 보도했다.

원전 보안검사관사무소 요코다 가즈마(39) 소장이 언론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제1원전 안에서는 현재 도쿄전력 자사와 협력사 직원 등 450여명이 작업을 하고 있다.

작업원 등은 매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작업을 하고 숙소에서 저녁 식사를 한다. 오후 10시를 넘겨 취침하고 야근자

는 잠을 자지 않고 각종 계기의 수치를 감시한다.

하루 두 끼의 식사 가운데, 아침에는 수십 개가 든 비스킷 2봉지와 채소 주스, 저녁에는 물을 넣으면 발효하는 미역 밥이나 버섯 밥, 케, 닭고기가 든 통조림 1통 등으로 끼니를 때운다. 물은 한 명당 하루 1.5리터 제공되지만 목욕이나 샤워는 불가능하고, 웃도 거의 갈아입지 못한다. /연합뉴스



깨끗하고 건강한 캐나다 청정자연에서 탄생한 - Natural Factors (내추럴팩터스) 드디어 한국에서도 공식 판매 합니다!

청정자연 캐나다에서 태어난 50년 역사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50여 개국으로 수출하여 글로벌 시장에도 우수한 품질확신!

2010년 12월 내추럴팩터를 국제약품이 공식 판매 합니다!

청정자연에서 건강을 찾아 연구하는 캐나다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내추럴 팩터스 50년 내추럴팩터스 역사를 담았습니다!



캐나다 대표 브랜드 내추럴팩터스는 수십만 평의 자체 허브농장에서 재배한 자연원료를 최첨단 자체연구소에서 우수한 연구기술진이 탄생시킨 고품질 명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원료에서부터 완제품까지 철저한 품질관리 시스템은 50여년 동안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철저하고 꼼꼼한 선택!-내추럴팩터스입니다!

Natural Factors 한국총판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공업주식회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48번지 http://www.kukjepharm.co.kr

제품문의 : (031) 781.9081(고객지원팀)